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2004년 6월

발행인/이종현 편집/길소희

주 소/(701-825)대구 동구 신천3동 147-1

전 화/0502-365-0001, 053-743-6058

홈페이지/creation21.org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지적설계 (3) 제2장 - 발표 서종학, 정리 이종현 | 2쪽 |
| 2. The BIBLE COMES ALIVE (18) by Clifford Wilson - 이종현 역 | 9쪽 |
| 3. IMPACT (6) 나사선성의 문제 - 이종현 감수 | 13쪽 |
| 4. 창조단상 (19) 악어 잡는 법 - 박종환 | 17쪽 |

인사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탄이 주는 우울함에 속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왕궁에 머물렀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밋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태함으로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와 가끔은 낮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시 낮잠을 자더라도 깨어날 때 멍한 기분 때문에 사탄이 주는 우울함에 속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현 올림

1.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4년 6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다음 모임은 7월 1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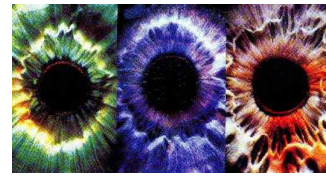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 (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7장 (7월 1일(목)에는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 8장)

발표: 권진혁 (지적설계 8장 발표: 서종학)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제2장 기적에 대한 비판 (The Critique of Miracles)

2.1 신앙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적(Miracles as Evidence for Faith)

◆철학의 역사

•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행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손들도 그 죄성을 이어받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게 되며,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있었던 자리가 마음속에 남아있었으므로 궁금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답도 없는 채 계속해서 질문을 하다가 철학이 나오게 되었다. 철학이 질문하는 것은 “이 세상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있을까?”라는 것으로, 이것은 잃어버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노아의 자손들(셈, 함, 야벳)이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서 나뉘대로의 문화, 철학 등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체계적인 것은 유럽철학으로, 그것의 기원이 되는 그리스 철학을 이해해야 된다.

• 그리스 철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한 가지가 합리주의(=이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신비주의이다. 신비주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성주의는 우리에게 이해되고, 관찰되는 것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신비주의는 디오게네시스의 뒤를 이어 피타고라스학과로 내려가서 플라톤이 완성했고, 이성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했다.

• 중세 때, 신학이 그 당시의 철학(답이 없는 질문의 연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철학이 지닌 똑같은 오류와 모순에 빠져들어 중세 신학의 결론은 무지로 끝나버린다. 마치,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이나 서 있을 수 있는가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들에 빠져들게 되었다.

• 신학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신학 속의 철학을 끄집어내려는 시도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순수하게 이성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 즉 자연주의적 세계관(자연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만 인정)을 성립시켰다.

• 그 당시에 스피노자가 나타나 신학을 잘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성주의적 자연주의적 세계관만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쉘라이어마허도 ‘이성’을 이용해서 신적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다가 아예 증명 자체가 필요 없다는 수동적인 자세로 돌아서게 되었다.

◆1650년 이전의 기독교 신앙

• 신앙과 이성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이성이 신앙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 토마스 아퀴나스와 존 칼빈 : 이성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확립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1650년에서 1850년 사이 : 스피노자 → 쉘라이어마허

-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기초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즉, 합리적인 증거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 버려졌다.
- 슐라이어마허의 논문 [기독교 신앙론]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나 필요성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전적으로 포기한다.』 → (이성으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합리적인 지지 같은 것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었다. 그 이후로 합리적인 논증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성과 신앙이 별개로 간다.)

◆스피노자에서 슐라이어마허에 이르는 철학자들의 주장

- 스피노자 : 기적을 무지의 피난처라고 부르면서 기적을 거부했다.
- 이신론자들 :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 자연법칙이 사물을 지배한다. 신은 떠났다. → 기적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적을 거부하게 되었다.
- 레싱 : 역사의 우연적 사실들에서는 영원한 종교적 진리들이 도출될 수 없다.
- 흄 :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개념을 부정
- 칸트 :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규정적 관념으로 바꾼 후 그 관념이 인간의 의식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함
- 슐라이어마허 : 어떤 증거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함. (그 당시에는 신학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맞서 싸울 지식이 부족해서, 철학에 동화되어 자연주의화된 기독교로 전락되었다.)
⇒ 신앙과 증거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증거’가 기독교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증거가 없는 신앙이 더 낫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다. →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 때문에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

- 스피노자와 슐라이어마허가 주장
-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비판의 결론은 ‘기적은 부조리(앞뒤가 맞지 않는 것)하다’는 것이다. 일단 기적이 부조리한 것으로 거부된다면, 기적이 지니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소멸된다. →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따른 분석, 즉 논리적인 결론일 뿐이지, 실제로 우주와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 더욱이 그 이전에는 기적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에 대한 최상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을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하는 모든 증거를 거부하는 것이 되었다. → 특히 하나님이 설계하는 지성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사라졌다.
- 스피노자와 슐라이어마허는 기적을 부조리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자연주의적 활동 방식을 철저히 제거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계 또한 부조리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스피노자와 슐라이어마허가 제시했던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비판은 틀린 것이다.
- 어떻게 처음에 스피노자가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비판을 발전시켰으며, 또한 슐라이어마허가 기독교 신학을 재건할 때 어떻게 그것이 흡수되었는가? 슐라이어마허는 언제나 자신을 기독교 신학자라 생각했지만, 그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설계하는 지성으로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증거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자연주의화된 기독교였다.

2.2 기적을 거부한 스피노자

◆시대적 배경

• 이 당시(1600년대 이후에서 1800년대까지)에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서 꼭 자연 상태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을 이해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어떤 원인을 공급하게 되면 이 지상에서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 당시엔 아마도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음식을 가져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음식을 다 꺼냄으로써 열 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자연주의적 세계관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부분을 인정할 때 그냥 공급되었다고 설명하면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었다.

◆스피노자의 [신학정치론]

• 1670년 출판된 [신학정치론]에서, 『만일 종교가 어떤 식으로든 선한 일을 하려 한다면, 먼저 철학에 의해서 정화되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미신의 영역 속에서 끝없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 기적에 대한 비판. 성경에 대한 공격. 성찬식과 미신을 동일시.

◆기적에 대한 스피노자의 비판

① 인식론적 비판 : 한계를 가진 인간이 기적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빈틈의 하나님(god of the gaps) : ‘설령 기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인가?’ → 그 사건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시킬 수 없다는 주장.

• 우리가 기적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만, 기적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열어 둔다.

② 자연주의적 비판 : 기적은 자기 모순적인 부조리한 것이다.

• 스피노자의 주장 : 『자연법칙에 반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과 동일한 것이다.』 →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것(기적)은 부조리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런 가능성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비판에 대한 비판

•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본성’을 동일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 스피노자는 일원론자였다. 일원론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과 자연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일원론 안에서는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본성이 같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조세계(자연)는 피조세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존재하신다.

2.3 스피노자에 동화된 술라이어마허

◆시대적 배경

• 술라이어마허도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본성’을 동일시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스피노자를 적으로 간주했던 전통적인 기독교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스피노자보다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했다.

• [기독교신앙론]에서 그는 기적에 대한 스피노자의 자연주의적 비판을 훨씬 더 엄밀하게 제시하고, ‘자연법칙’과 ‘하나님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스피노자의 관점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증했다.

• 스피노자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피노자를 큰 소리로 비난할 수 없었고, 슐라이어마허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스피노자를 칭송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정의

- 자신이 기적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던 스피노자와는 달리, 슐라이어마허는 자신이 ‘자연의 체계’라 부른 것 안에서 기적을 위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그러나 결국 기적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 [기독교신앙론] 이전의 정의 : 기적 = ‘물리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 기적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제시
- [기독교신앙론]에서의 정의 : 절대적인 기적 = ‘자연의 상호 관련성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사건’ → 기적에 대한 자연주의적 비판을 위한 무대를 준비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 비판

- 자연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 보통의 경우 어떤 사건(event) E가 일어나면 그 사건 E를 설명하는 자연적인 원인(cause) C가 항상 존재한다. → C와 E의 자연적인 인과관계 : C가 E를 일으킨다.
- 자연에서의 인과적인 상호 관련성을 중단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떤 사건 M이 기적(miracle)이 된다는 것의 의미 - M은 ‘C가 M을 일으킨다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 C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전칭부정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 기적이 성립하는 조건
 - 1) 모든 자연적인 원인 X에 대해, X가 M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 2) C가 일어났다. C는 W를 일으킨다. M은 W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M이 W 대신에 일어났다.
- 절대적인 기적은 1)과 2)를 만족시키는 사건 M이다.
- 인과적인 형태 2)를 논리적 형태로 다시 쓰면
 - 2’) C가 있다. C는 W를 수반한다. M과 W는 동시에 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M이 있다. → M이 있다. 그러나 M과 W는 동시에 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M은 not-W이다. C는 W를 수반하므로 대우 명제에 의해 not-W는 not-C이다. 그러나 C가 있다. 모순이다. → 이것은 기적이라는 개념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 비판의 결론 = 기적은 부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에서 제거될 필요가 있다.

2.4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인 비판 분석

◆그 시대의 과학은?

- 슐라이어마허의 [기독교 신앙론](1820년대) 이전에 근대과학 발생 ;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 슐라이어마허는 인과관계와 수반관계를 동일시(일원론자) 했지만 그 시대의 과학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 뉴턴과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자연적인 원인과 논리적인 필연성을 융합시키려는 슐라이어마허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 뉴턴의 말, “나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Hypotheses non fingo).” → 궁극적인 설명은 과학의 영역 밖에 있어야만 한다.
- 뉴턴과 그의 제자들은 이처럼 과학에 대해서 최소주의적인(minimalist)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적은 자연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제대로 된 개념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 비판

- 인식론적 비판은 기적의 개념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기적의 개념을 폐지시키는 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식론적 비판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능력 또는 알지 못하는 무능력이 결코 실재의 사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 실재와, 실재를 아는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별개의 문제이다.
-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 비판은 기적의 개념을 폐기시키려고 시도했다.
- 사건 M이 기적인지를 묻는 것은 슐라이어마허에 따르면 적법하지 못한 것이다.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조리한 것이다. 기적은 내적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인 비판에서 내리는 결론이다.

2.5 자연주의적인 비판에 대한 비판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 비판을 적절하게 비판하려면

- 스피노자와 슐라이어마허의 비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 : 인과율을 논리적인 필연(또는 우리가 앞에서 수반이라 부른 것)과 동일시하는 것 → 단순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기적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인과율을 논리적인 필연을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포함될 수 없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곳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신학을 지닌 철저한 신학적 결정론자들이었다.
-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인 비판을 적절하게 비판할 때의 문제는 단순히 인과율과 논리적인 필연이 혼합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체적인 구상에 계속 포함시키면서도(하나님을 제거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인과율과 논리적인 필연이 혼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엄격한 인과적인 결정론을 피하는 신학적인 결정론을 찾는 것이다.

◆기적에 대한 슐라이어마허의 정의

- M이 기적이 되는 조건 두 가지
 - 1) 모든 자연적인 원인 X의 경우, X가 M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 2) 자연적인 원인 C가 일어났다. C는 W를 일으킨다. M은 W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W 대신에 M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여긴다면(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3)모든 Y(Y는 전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Y를 정하신다면 Y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슬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인 비판 : 하나님은 자연의 체계 전체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어진 원인과 주어진 결과를 연결하는 모든 인과적인 단계를 정하셨다. → 그러므로 기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M에 대해 3)은 2)에서 C가 W를 일으킨다는 것과 C가 W를 수반한다는 것이 동일함을 보장해 준다. → 그러나 일단 이 등식이 만들어지면 2)는 내적인 모순을 갖게 되고, 기적이라는 개념도 부조리한 것이 된다.

•이 논증 과정에 들어있는 논리는 그 자체로 유효하며, 나무랄 데 없다.

•문제가 된다면, 이 논증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

◆기적에 대한 슬라이어마허의 정의에서 문제가 되는 전제

•문제가 되는 전제 = 슬라이어마허가 자연의 체계라 부른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야만 한다는 전제

•자연의 체계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세상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총족된 체계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 → 슬라이어마허의 자연의 체계는 처음부터 자연주의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체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슬라이어마허가 실제 세상과 대치해 버린 형이상학적인 가설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슬라이어마허의 의미에서의 자연의 체계가 되도록 정하셨을 수도 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자연의 체계가 되도록 결정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데에 있다.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에 대한 슬라이어마허의 견해 : 슬라이어마허는 ‘능력 있는 기도(efficacious prayer)-상황을 바꾸는 기도’로 알려진 것을 거부한다. → 능력 있는 기도를 무시하게 되면 운명론(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발버둥쳐 봤자 소용이 없다), 혹은 결정론(자연법칙에 따라 가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대로 따라간다)으로 빠져들게 된다.

- 슬라이어마허는 결정론자이기는 했지만, 운명론자는 아니었다.

•이중 기준은 없다. :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조건문을 거부했다. 그러나 반운명론자였던 슬라이어마허는 특히 그가 병들고 의사가 치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의사에게 가지 않았다면 경과가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형태의 조건문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렇다면 앞의 조건문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 Nature : DNA상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셨다.

- Nurture : 영양공급에 따라 nature가 바뀔 수 있다. 우리의 기도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결정의 범위

•슬라이어마허(및 스피노자)의 생각 =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작동이 결정되는 자연의 체계를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결정하실 수도 있고(예,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약속), 어떤 사건을 조건적으로 결정하실 수도 있다(예,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

1)하나님은 모든 사물이 자연의 체계 안에서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보편적인 법칙을 따라서 작동하도록 결정하실 수도 있다.

2)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이런 자연법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결정하시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도록 결정하실 수도 있다.

3)아니면, 하나님은 보편적인 자연법칙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 없도록 하시고, 그 대신 단지 개개의 사건들만을 직접 결정하실 수도 있다.

◆결론

- 17, 18세기의 신학은 그 때 당시의 과학,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철학과 과학은 미숙했다. 그러므로 17,18세기의 신학도 미숙했다.

- 피조세계 = 각각의 존재들이 다른 존재들과 상호 작용하는 고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실재의 상호 관련된 집합

- 하나님은 자유롭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특히 존재하고 있는 능력의 경우에는 그 능력을 자유롭게 폐지하실 수도 있다.

-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존재의 고유의 능력을 무효로 하시고 그 존재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신다.

2.6 자연주의적인 비판의 중요성

◆설계와 관련한 자연주의적 비판의 중요성

- 그들의 비판의 유산은 진지한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 되어 왔다. 그 표준적인 방법은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학문의 영역에 만연되어 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따르면 진지한 탐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문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연주의적인 설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그렇게 해서 필연적으로 기적을 배제시킨다.

- 그들의 비판은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결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단지 자연을 자연적인 원인의 닫힌 체계로 이해했을 때에만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 하지만 우리는, 닫힌 우주론이 아니라 열린 우주론을 가져야 한다.

- 과학의 세계가 되었든 종교의 세계가 되었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실 수 있는 세계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세계이다. 이런 세계는 ‘모든 것에 대한 이론(theory of everything)’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가 결국에는 실패할 운명임을 말해 준다.

◆결론

- 결과적으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설계하는 지성에 대해서 아무런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 기적을 불가능한 것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

- 그러나, 기적에 대한 스피노자와 슐라이어마허의 자연주의적인 비판은 기적을 배제시키는 데 실패했다.

- 따라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지지를 받을 수 없고, 설계를 막는 데 적법하게 사용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설계에 대한 가능성은 다시 열리게 된다. **참조**

예루살렘 ... 이삭과 이스마엘



“고대 도시 예루살렘”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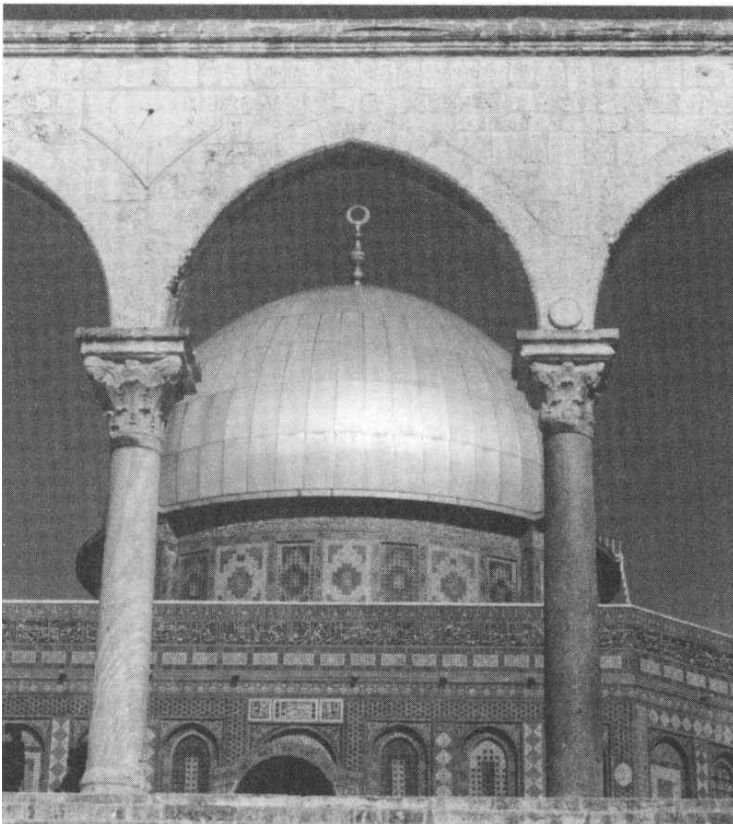
이것은 “고대 도시”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드리려고 이 지역에 왔다. 그가 그의 믿음을 보였을 때 그의 손이 제지당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였다.

우리는 지금 개관을 다루고 있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뤄야 하겠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그녀는 남편을 재촉하여 자기 하녀인 하갈로부터 자손을 얻게 했다. 아브라함은 이에 동의했으며 그 결과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에쉬누나/Eshnunna(BC 1900년경) 법전과 함무라비 왕(BC 1700년경 - 둘 다 바빌로니아에서 온 것)의 법전 같은 것을 연구해보면 이런 일이 비교적 흔하다는 것이 분명하며, 아브라함은 자기의 배경에 반하여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 행했다. 그러한 풍습에 타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다(창 16:1-3). 하갈 자신은 그에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개인적 안전이 법적으로 더 보장되며, 그녀의 자손 또한 보호받는다. 같은 지역에 속하는 누지/Nuzi에서 나온(BC 1500년경) 후기의 점토판에 의하면 그런 풍습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풍습을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또한 상속권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선임의 집사가 상속을 받으며, 그와 동시에 주인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그녀를 돌볼 책임도 맡는다. 그러나 내연의 처나 둘째 부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는 그 자녀가 집사장을 대신한다. 그러나 나중에 원래의 부인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가 상속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을 성경과 연관시키면 그 기록들은 그 당시의 풍습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다메섹/Damascus의 엘리에셀/Eliezer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상속자였다가(창 15:2-4), 이스마엘로 대체되었다가(창 15:4, 16:1), 나중에 이삭이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었다(창 17:20, 21:12, 25:5-6).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들의 아버지의 장례식 때 다시 만났다(창 25:9).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분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나중의 예루살렘)에서 바치라고 명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예견으로서 이삭이 그 모형으로 바쳐졌다.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히 11:19).

바위 돔(Dome of the Rock)



이슬람 교도의 “바위 돔”

이슬람 교도들은 이 돔 아래에 있는 바위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바쳐진 곳이라고 믿는다.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마 23:38)는 말씀처럼, 성전터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으로 여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바위돔(및 기타 아랍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동 지역)이 이스마엘 역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의 증거가 된다(창 17:20, 21:13, 18).

그러나 동시에,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셨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는 말도 있다(창 16:12).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로부터 그의 자손 이스마엘을 갖는 일로 하나님의 시기를 앞지르지 않았다면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추측해볼 문제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가 우물을 팠던 곳인 브엘세바/Beer-sheba로 돌아왔다.

먼저, 아브라함이 여행했던 실제 지역을 보자: 요즘의 예루살렘 부근이다. 그리고 이슬람교도의 바위 돔(Dome of the Rock)의 확대된 모습이다. 이 돔은 다윗 왕이 성전을 짓기 위해 구입한 곳과 같은 터에 있으며, 그 아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실제로 지어졌다. 그 돔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 위에 지어졌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다. 결국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도의 손에 넘어갔으며, 그들은 성전이 있던 터에 성전보다 약간 남쪽에 그 유명한 돔을 지었다.

코란에서 아랍 사람들은, 그곳에서 바쳐졌던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한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이 돔이 세 번째로 중요한 성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브엘세바 이야기(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은 유목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브엘세바 근처에서 정착했다. 구약에서 브엘세바가 중요해졌으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 허용된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었다. 사무엘상 3:20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브엘세바 현장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역 사람들과 거래를 했던 곳이다. 그곳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끝이라고 볼 수 있다.(단은 북쪽 끝이다.)

그 지역명에 대해 사사기 20:1, 사무엘하 3:10, 17:11, 24:2 등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이스라엘이 역시 해안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배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기타 족장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곳이다. 그 이름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일곱 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다. 그 이름은 창세기 21:25-33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지도자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과 관계된다.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동생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아내를 부인했었다. 사실상 그녀는 배다른 동생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사라의 명예를 지켜주셨으며, 그녀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셨다.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종임을 알았으며,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그의 아내 사라를 되돌려주었다.

또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대로 거하라』

(창 20:15)



공중에서 본 브엘세바

다음 장에 있는 공중에서 본 사진은 브엘세바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 훌륭한 개념을 제공해 준다. 왼쪽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물을 얻기 위해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팠을 수 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청동기시대에 브엘세바 지역의 일부 동굴에서는 가축을 기르고 금속 연장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도기와 돌그릇을 만들었으며, 상아와 뼈로 작은 입상을 깎아냈다. 이 사람들이 동굴에 살기는 했지만, 그들의 세공 솜씨는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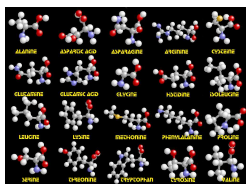
공중에서 본 브엘세바

사진의 왼쪽의 물 공급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서로 다른 시기에) 물을 퍼냈던 곳일 수 있다. (동일한 행동이 실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시기에서 중요했다. 역대하 19:4에 이렇게 쓰여 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 여기서는 단 대신에 에브라임이 적혀있는데, 이제는 단이 북왕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19:3, 8에 의하면, 엘리야의 그 유명한 여행지가 호렙과 브엘세바였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착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브엘세바였다(느 11:27, 30).

발굴에 의하면 그곳은 페르시아 시대와 헬레니즘 시대를 포함하여 수세기 동안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BC 4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10개의 아람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들은 밀과 보리의 분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취급하고 있다. **참조**





나사선성의 문제 (The Problem With Chirality)

진화론자들은 여러분이 화학을 모르기를 바란다: 나사선성의 문제

(EVOLUTION HOPES YOU DON'T KNOW CHEMISTRY
: THE PROBLEM WITH CHIRALITY)

1953년에 '시험관 내의 생명'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에 나타났을때, 진화론자들은 스탠리 밀러 (Stanley Miller)와 해럴드 유레이(Harold Urey)의 실험을 생물이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 화학물질로부터 생성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매우 흥분했었다. 그러한 고전적 실험에서는, Miller와 Urey가 메탄, 암모니아, 수소와 수증기 혼합물을 결합하고, 그 혼합물에 번개를 모사하기 위한 전기방전을 통과시켰다. 실험의 결과로, 약간의 아미노산을 포함한 합성물질이 발견되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연쇄 고분자의 개개의 연결고리이고 단백질이 우리 몸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문은 이제 생물이 화학물질에서 왔음을 증명하는 실험실 증거가 있다고 재빨리 발표했다.

유기화학 박사로서, 나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 실험에서 단연코 생물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결과물은 아미노산이었으며, 그것은 '생명이 없는' 보통의 일상적인 화학물질이다. 심지어 오늘날까지, 아미노산이 생명체로 전환된 과정이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으나, 이러한 사실이 진화론자들로 하여금 이 실험이 화학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증거라는 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진화론자들은 그 아미노산이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으나, 어쨌든 그들은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블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라고 부른다. 이러한 주장은 만약 충분한 건축용 블록이 존재한다면, 생명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나, 이러한 결론은 단지 가정일 뿐이며, 결코 증명된 적이 없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블록일수도 있고 단백질이 생물에 필요하나, 아미노산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블록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가 자동차 부품 가게에 가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부품을 살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동하는 자동차를 갖게 되지 않는다. 자동차 부품으로부터 움직이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 조립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생명이 우리 몸체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만드는 이가 있어야만 했다.

1953년 이래로, 과학자들은 그 실험에서 아미노산의 생성이 생물은 화학물질로부터 왔다는 주장을 증명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많은 이들은 이 실험이 진화를 입증하는지 아니면 그 증거가 전능하신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50년 동안 과학자들은 질문을 던져왔고, 50년 동안 그 토론은 결국 논쟁으로 끝이 난다. 그것을 전문적 호기심이라고 부르지만, 과학자로서 나는 항상 왜 이 사실에 대한 토론보다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이 더 많은지를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다음 나는 사실에 대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나사선성이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사선성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작위적이고 우연적인 진화에 반하는 가장과학적인 증거 중의 하나일 것이고, 나사선성은 생명체가 화학물질로부터 왔다는 주장을 완전히 파괴한다. 명백히, 이것은 그들이 심지어 토론조차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다.

나사선성은 선성(handedness)을 의미하는 화학 용어이다. 비록 두 개의 화학 분자가 같은 요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두 개의 분자가 동일하게 보이면서 구조가 다른 이성체(mirror image)일 때, 그 분자들은 나사선성을 가진다고 말하게 된다. 여러분의 왼손과 오른손이 나사선성을 설명한다. 여러분의 손은 동일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서로 거울 이미지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나사선성은 오른손 형태나 왼손 형태의 분자로서 존재할 수 있고, 각 분자는 광학 이성체(optical isomer)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나사선성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몸 안에는 단백질과 DNA가 독특한 3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3차원 형태로 말미암아 우리 몸체 내의 생화학적 과정이 작용하게 된다. 단백질과 DNA에 독특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나사선성이고, 나사선성이 없다면, 우리 몸 안에서의 생화학적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단백질의 모든 각각의 아미노산은 똑같이 왼손 형태의 나사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Miller와 Urey가 실험을 통해 아미노산을 생성했지만, 생성된 모든 아미노산은 나사선성이 부족했다. 나사선성이 무작위적 과정에 의해 화학 분자 내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화학적 사실이다. 무작위적 화학 반응이 나사선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때, 오른손 형태의 이성체뿐만 아니라 왼손 형태의 이성체를 같이 만들게 되는 기회가 된다. 그것은 나사선성적 물질을 생성하는 무작위적 우연적 과정은 단지 두 광학 이성체가 50%씩 들어있는 혼합물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다. **어떤 예외도 없다.** 나사선성은 단지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문제로 인식하는 특성이다. 그들 아미노산 안에는 나사선성이 없다는 사실은 단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는 자연적 과정에 의한 화학물질로부터 올 수 없다는 엄청난 실패를 가리킨다.

단백질과 DNA 내의 나사선성을 살펴보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고분자이고, 각각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은 "L" 또는 왼손 형태의 광학이성체로서 존재한다. "R" 또는 오른손 형태의 광학 이성체가 실험실에서 합성될 수 있어도, 이 이성체는 자연적인 단백질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DNA 분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불리는 수십억 개의 복잡한 화학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뉴클레오티드 분자는 "R" 또는 오른손 형태의 광학 이성체로 존재한다. 뉴클레오티드의 "L" 이성체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자연적인 DNA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작위적인 우연적 과정을 통해 독특한 나선성을 가진 이러한 단백질과 DNA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만일 단백질과 DNA가 우연히 형성되었다면, 각각의 모든 구성요소는 두 광학 이성체가 50%씩 들어있는 혼합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적 단백질이나 자연적 DNA에서 보는 것이 이것이 아니다. 어떻게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이 수천 개의 "L" 분자를 가진 단백질을 만든 다음, 또한 수십억 개의 "R" 분자를 가진 DNA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무작위적인 우연처럼 들리는가, 아니면 설계의 산물로 들리는가? 비록 나선성을 보여주는 마술적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이성체 하나만 만들 것이다. 만일 그러한 과정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른다.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른 나선성을 가진 혼합물이 늘 만들어졌을까? 비록 각 이성체에 대한 두 가지 불가사의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이라면, 어느 과정이 사용되었고, 언제 사용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 과정이라는 생각은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이런 종류의 통제는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나선성에 관한 문제는 훨씬 더 깊다. 뉴클레오티드 분자가 DNA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발생할 때, 그것들은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비틀기(twist)를 한다. 각 구성요소가 나선성 또는 선성(handedness)을 포함하기 때문에 DNA는 사슬 내에서 비틀기를 한다. DNA에 나선 형태의 나선형 구조를 주는 것이 이 선성(handedness)이다. 만일 DNA 구조 내의 한 분자가 틀린 나선성을 가지면, DNA는 이중 나선형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DNA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복제 과정(replication process)은 잘못된 철로 위의 기차처럼 탈선될 것이다.

DNA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분자 모두가 오류 없이 'R' 배열로 동시에 생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약 뉴클레오티드 하나가 나선성을 가지고 생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십억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동시에 정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불가능하겠는가? 만일 진화론이 나선성을 가진 합성물질 하나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없다면, 상반되는 나선성을 가진 두개의 합성물질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선성은 진화론에 있어서 두드러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딜레마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자연적 과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나선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자연적 과정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거나, 나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딜레마이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쪽이 옳은지 의심스럽다면, 여러분이 나사선성의 실재에 대한 살아 있는 예다. 나사선성이 없다면, 단백질과 효소는 그것들의 일을 할 수 없고, DNA도 전혀 작용할 수 없다. 제대로 작용하는 단백질과 DNA가 없다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없을 것이다.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나사선성의 실재로 말미암아 나는 전능한 창조자의 실재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기를 바란다.

나는 창조론자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진화론자들은 대개 모든 것은 자연 과학으로 설명되어야만 하고, 신의 간섭은 과학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맞서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놀랍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자연 과학의 법칙으로는 나사선성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음을 진화론자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그러한 과정이 자신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방법에 의해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누가 초자연적인 설명에 의존하고 있는가? 비록 그들이 그것을 결코 신의 간섭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확실히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신념에 의존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단지 여러분들이 화학을 모르기를 바란다.

DNA와 인체 내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DNA의 정상적인 복제 과정의 일부로, 복제 DNA 가닥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효소가 DNA 가닥을 따라 이동한다. 효소가 그 가닥을 따라 분자의 순서를 읽을 때, 그리고 만일 부정확한 뉴클레오티드가 그 가닥에서 감지되면, 다른 효소가 잘못된 뉴클레오티드를 자르고, 정확한 뉴클레오티드를 삽입해서, DNA를 교정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

정말로 그것들이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으로부터 만들어지는지 아닌지, DNA와 이 교정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교정 메커니즘이 먼저 진화했고, DNA가 아직 진화하지 않았다면 교정 메커니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일 DNA가 먼저 진화했다면, 교정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일 더 낫다는 것을 DNA가 어떻게 알았을까? 분자가 생각할 수 있는가? DNA는 안정한 화학 분자가 아니고, 교정 메커니즘이 없다면, 그것은 화학적 산화작용과 다른 과정에 의해 쉽게 분해될 것이다. 교정 메커니즘이 진화하는 동안 DNA가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없다. 진화론자들이 추정하는 수십억 번의 무작위적 우연한 돌연변이가 교정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기 전에 DNA는 단지 그 당시 연못 부유물로 부패했을 것이다.

일단 설계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전 우주가 무작위와 우연한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든 전능한 창조주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기 시작하기를 바란다. 진화론은 여러분에게 표면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이론을 줄 수 있으나, 진정한 과학이 관여하고 과학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진화론의 문제와 잘못된 논리가 명백해진다. 그러한 까닭으로 진화론자들은 여러분들이 화학을 모르기를 바란다. **참조**



악어 잡는 법 !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악어를 잡았을까? 그들은 악어의 특징을 잘 이용하였다. 물 위에 떠 있는 악어를 긴 막대기로 자꾸 찔러 약을 올리면 악어가 자꾸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어는 힘이 빠지게 된다. 한참 시달림을 당한 악어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때 끈으로 입을 동여 묶고는 물 속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어떻게 힘센 악어가 그렇게 간단하게 잡힐까?

악어는 파충류로서 냉혈동물이다. 그래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큰 에너지가 필요 없는 동물이다. 악어 같은 파충류의 허파는 한번 호흡할 때 산소가 교체되는 비율이 약 10%정도이다. 코(기관지)로 들어간 공기가 다시 코로 나오는데 이 때 허파 속의 공기가 10% 정도만 교체된다는 뜻이다. 즉, 허파의 효율이 약 10%라는 뜻이다. 허파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악어는 힘을 한꺼번에 쓸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쓰기가 힘든 동물이다. 막대기로 오랫동안 악어의 힘을 빼면 결국은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의 허파효율은 대략 30% 정도이다. 그래서 사람도 허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심호흡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가슴을 펴고 자주자주 심호흡을 하면 허파의 효율이 높아져서 건강에 좋다. 하품도 사실은 무의식적인 심호흡이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안전장치인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의 허파 효율은 얼마나 될까? 거의 100%이다. 공기가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통로가 따로 되어 있어서 들어온 공기가 허파를 통과하여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100%가 된다. 공중 높은 곳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파충류의 허파나 사람의 허파를 새가 달고 있다면 새는 날아다닐 수가 없을 것이다. 보통 철새는 1,000Km, 북극제비갈매기는 20,000Km(북극에서 남극까지)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것도 바로 효율적인 허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파충류에서 조류, 그리고 조류에서 포유류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허파의 효율로 따져 보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 행여나 그랬었다면, 악어에서 사람이 되었다가 새(?)로 진화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